



그림 3-2. ‘홍로’, ‘감홍’사과에 발생한 점무늬낙엽병 이병엽율 조사결과 (2014년, 군위군)

특히 살균제 살포를 마친 8월말부터 ‘홍로’, ‘감홍’에 발생한 점무늬낙엽병의 이병엽율을 꾸준히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사한 10월 8일경에는 ‘홍로’사과는 7.9 %, ‘감홍’사과는 18.1 %의 이병엽율을 보였다. 금년의 경우 늦은 장마로 인해 주요질병의 발생이 살균제 살포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까지 늦춰졌고, 9월부터 살균제 살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10월까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로’사과의 경우, 7월 29일 이후부터 꾸준히 점무늬낙엽병의 이병엽율이 증가하였고, ‘감홍’사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약 10%대의 이병엽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늦은 장마가 끝난 8월 29일 이후부터 다소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갈색무늬병의 발생은 8월 11일까지 모든 과원에서 1~2 잎 가량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발병율이 매우 낮았으나, 8월 하순부터 0~0.1%의 이병엽율을 보였다(그림 3-3). 갈색무늬병의 이병엽율이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늦은 장마로 인해 8~9월 발생한 강우와 살균제 살포프로그램이 8월 하순 종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갈색무늬병의 발생은 마지막 조사시기였던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일부 나무에서는 조기낙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